

승리제단 단상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승리자뿐입니다

승리자는 바라보기만 하면 마귀가 박멸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영모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관 식구들은 대부분 알죠. 영모님이 오만제단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소사가 아니고 광주라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야 하나님 역사야? 마귀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분별되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은 7번째 인을 때 는 자

아는 사람은 현혹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사람보고 맨 꼬리라고 말을 했고, 맨 꼬리의 다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죠. 첫 번째 인을 때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인을 때는 자카 이삭, 세 번째 인을 때는 자카 야곱, 네 번째 인을 때는 자카 단군 할아버지고, 다섯 번째 인을 때는 자카 영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때는 자카 해와 이긴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카 바로 둘째 아담입니다. 이 사람이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써어 있죠?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관 식구를 전도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대주면서 전도하면 그냥 따라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세주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살려주는 영이죠.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산 영이라는 건 영자체가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죽음의 영으로 변화되어 인간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전부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 이긴자가 된 후 해와 이긴자가 이 사람에게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실에 있는 식구들은 이 사람이 아담 이긴자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에 써어 있으니까 구세주가 틀림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 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 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긴 바 되리라" 이긴자가 사망의 영을 전부 죽여 없애 버린다는 거죠. 이긴자가 삼켜버리면 죽기 때문에 이긴자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이기는 광경을 봤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한국에서 출현한다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온다고 이 사아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써어 있습니다.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구세주 조희성님

동방 나라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을 동방나라라 했습니다.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섬들은 잠잠하라. 섬에서는 의인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나라의 관리 중에서 죄를 지으면 섬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섬으로 귀양을 보내서 바로 섬사람들은 의인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에 조국애에 대한 불붙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나라는 구세주가 나올 민족의 나라입니다. 구세주가 나올 민족이니까 마귀들이 우리나라가 변성 못하게 합니다.

이긴자가 나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긴긴 세월, 육천년간을 하나님이 키우신 것

입니다. 육천 년간 이 사람을 키워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왔을 때에도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면 오만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한 집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었고 한눈을 팔려야 팔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지 이 사람이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죄나 평평 짓고 살았으면 의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노동자처럼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에 말타기 싸움 하는데 이 사람이 기운이 제일 세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대장을 중심으로 총공격을 하고 밀어젓더니 뒤로 자빠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더 심하게 머리를 다쳤으면 뇌진탕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병원에 실려 가서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꼭 죽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 준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사람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긴자의 영이 믿음이요 생명과 같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기까지

는 성경을 전부 외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속에 구원론, 생명의론, 선악과론, 부활론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정의도 모르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장로교 다닐 때부터 알았습니다. 목사가 역시 믿음의 정의도 모르고 있고 구원론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긴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면서 곧 생명과 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생명의론과 믿음이 무엇인지 않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믿는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죽을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즉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사망의 신을 이기는 사망의 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 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와 더 붙어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라는 것을 일찍이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일찍 알았지만 누구한테도 그 아는 사실을 입을 벌려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천기를 입을 벌려 알려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서 입을 열지 말라고 입을 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해서 자란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이런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승리대 위에 선 자가 이긴자라고 격암유록에 써어 있죠. 승리제단 단상에 서있는 사람이 이긴자라는 말이 격암유록에 써어 있듯이 이긴자가 구세주요 구세주가 이긴자입니다. 구세주는 마귀를 죽이는 자가 구세주지 마귀를 못 죽이면 구세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로 이슬성신이 마귀 죽이는 무기입니다. 마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만 마귀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죽여서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도 없애버렸고 태풍도 못 오게 하고 여름장마도 못 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초창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증거는 박물관에 가면 옛날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기와장이 있을 것이니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3000년 전 고조선에 살던 우리 할아버지들의 집의 기와장입니다. 그 기와장에 써어 있는 글자가 고대 히브리어로 '도착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는 그러한 히브리어 글자가 기와장에 써어 있는 것입니다.*

2002년 6월 16일 말씀 중에서

조희성님의 발자취

이긴자 후보자가 마귀와의 투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세상에서 큰 사건이 발생한다

이담 이긴자를 배출하기 위한 18년간의 고난

박태선 영모님은 한편으로 예수의 종을 자처하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은혜와 이적의 역사를 드러내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계셨던 것이다.

바로 노고산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 그 뒤편, 소래산을 마주하며 안겨 있는 밀실이라는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의인 이긴자를 배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밀실에 있는 천사 마귀인 흥업비를 마귀로 내치는 것으로 비쳤다. 언젠가 소사 신앙촌 내에 있는 자유시장에서 불이 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영모님은 불이 난 후에 타다 남은 목재 중에 쓸 만한 것을 가지고 저 오만제단 너머 계곡에 천사마귀가 있는 곳에 기도실을 하나 지어주라고 신앙촌 건설대 반장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때 기도실로 아무렇게나 지어준 건물은 오늘날 아담과 해와를 배출한 밀실이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흥업비 권사는 일명 해와

이긴자로 불리며, 하늘의 삼수의 원리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아담 이긴자를 키우고 있었다. 해와 이긴자는 전봉국 집사를 의인으로 키워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키워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키워 보시고 하시었다. 그러면서 18년이란 긴 기간 세월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갖은 고초를 겪었던 것이다.

당시 밀실은 오만제단에서 보면 바로 코밑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첩첩 산중과도 같았고, 오늘날처럼 도로도 나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해와 이긴자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는 운동화를 단정히 신고서 복장도 단정히 하여 산길을 돌아돌아 나가셨다. 차는 타지 않고 걸어서 집집마다 다니시며 주변 일대를 전도를 하였고, 마땅한 의인 후보자가 없으면 더 멀리도 다니셨다.

때로는 주변 들판이 비가 와서 냇물이 넘쳐 길이 어디인지를 분간 못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물이 불어 넘쳐 길이 없는 위험



이긴자 후보자가 역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조희성님께서 자살하려고 할 때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다 / 그림 박준주 장로

한 상황에서도 몸을 던져 떠나려가면 신히 건너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 중의 뜻, 아담 이

긴자를 배출하기 위한 외롭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18년간 걸으셨던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아담이전 전쟁 속의 의인 후보자들의 고난

그러다 보니 어느 때에는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해와 이긴자께서는 "우리의 피를 신원(伸冤)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통곡의 기도를 하셨다. 이 때 하나님의 사정이 불리한 조건에 몰리게 된 그 여파로 영모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참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해와 이긴자가 한 번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해와 이긴자가 마귀에게 졌다가 되었고, 육적으로는 영모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참변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감람나무 본체가 되는 영모님께서 가지가 되는 해와 이긴자를 정상으로 들어 올려야 되므로 더욱더 곤욕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삼수(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 아담 이긴자가 나타나는 일이 더 지연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키우는 가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들쭉날쭉할 정도의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밀실에 있으면서 실제로 목도하며 체험하였다.

고로 이 사람도 밀실에서 연단되는 것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얼음판 위를 내딛는 심정으로 해와 이긴자가 지키라는 자유율법을 지켰던 것이다. 그러다가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실제 이 사람이 자유율법을 어기고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대형사고가 나고 나라 전체가 여수선하게 되었다. 또 자유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넘어지게 되면 부산 기장에 있는 영모님께서는 단에 서시지 못하고 몇 개월씩 뼈와 가죽만 남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지내신 일도 있으셨다. 그때가 일본 산요회사의 다무라 전무가 전자시계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계를 납품하기 위하여 계약 차와서 환영식을 할 때인데, 그때의 기념사진을 보면 영모님의 얼굴은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에 있었다.

이때가 바로 이 사람이 자유율법을 지키고 올라가는 중에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곤두박질치던 때였던 것이다.*